



(1998년 9월15일 창간)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 조남진 편집인 :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3)256-1260-1 FAX(033)257-1260

- 노인 300명을 모시고 만찬집대로 환한 웃음선물 -

♡ 후원 및 도움문의 : 033)254-7244 월드비전 재가복지봉사센터



현재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
관은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도
시락 등을 직접 가정방문 배달하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church service. A banner at the front reads "김영성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e thank God who has given us the fruit of Kim Young-seung). The congregation is seated in pews, facing the altar.

- 회장 김주환목사 수석부회장 김창수목사 -

감리회 동부연회 박상혁 감독취임

서 동부면의 제13대 감독으로 선출된 이후 새마을 회 박상혁(朴尙赫)씨는 원주중지 감리사이며 동부면의 감리사였던 회 회장으로서 사임하였다.

1941년 9월 13일으로는 목천대학 신학과와 기독교신학대학신학원을 졸업하고 아세안연합신학대학원 및 미국 풀러튼학교 공동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영원당교회에서 장로직을 지각하여 봉사에 앞장서 일하는 목회자로서 사람의 감회기증운동 강연지의 본 부장을 맡고 있다.

"새로운 세시대를 맞아 새로운 영적도야가 필요한 시기에 이 시대 의 새얼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망을 표명한 박감독은 감독교본부 '하늘농장' 권민위원장과 감리고 전국부흥장단을 역임하였다. 사모 명광교회(가) 1년11월을 두었고 이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천신대학학 사목장으로 많은 글과교회 부흥사업의 새 도를 열어나갔다.

한국월드비전(회장 오재식)은 11월 9, 10일 설악 컨벤션호텔에서 월드비전 전국지회 임원목사 부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과 섬김을 통한 교회성립'이란 주제로 「제8회 전국지회 임원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월드비전은 총 80개 지회로 2천5백여 초교파 교회가 월드비전 지회교회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밥 한끼 배불리 먹는 것이

성 명	(남 / 여 / 단체)	
주민등록번호	-	
하시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집 :	직장 :	핸드폰 :

200-091 춘천시 효자동 373-90 월드컵 Chuncheon Information Center ☎ 033)254-7244 FAX 033)251-1164

web: <http://www.holycc.org>
E-mail: KIBIBLE2@hite!net / kibible2@hosanna.net / webmaster@holyc.org

출판성시화운동본부

사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교회에서는 금년 가을에도 11월 셋째 주일을 기해 추수감사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며 좋은 양곡을 골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으로 감탄에 진열하고 감사예배의 축제를 벌일 것이다.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농산물이나 현대적인 유품의 삶의 수단이 하나인 은혜로 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표현일 것이다.

추수감사절(Thanks Giving Day)의 유래는 가인과 아벨의 감사제와 1621년 신대륙을 발견한 영국 청교도들이 첫 수확물로 토인스에게서 연유된다. 우리는 신불신(新不信) 안에 미신(迷信)에 빠진 행위를 중단하고 이 가을에 얻은 소득의 일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의 회복은 감사하는 삶에서 찾을 수 있다.

나의 소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들 내가 임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데 자기 소유의식으로 되어 버린 개인, 집단, 사회의 소유질서, 경제질서는 파괴되고 어떻게 될 것이며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되어 질서가 깨지고 부패한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힘없는 이웃을 먹이고 입히고 위로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몇년동안 IMF경제로 어려움을 겪어

되었지만 그러한 중에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우한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실직 실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 금년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 지 걱정이 태산 같은 이웃들이 우리들의 따뜻한 손길,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와 교인들은 각자의 주변에서 감사를 실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농협간지역본부에서는 금년 풍년 농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믿고 전직원이 하나님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창간반을 일이라 생각한다.

동 본부는 3년째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한국통신도 전직원이 살신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수년동안 추수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

창교자들이 시작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오늘도 부강한 미합중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 비하르주의 피폐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미신(迷信)에 감사하는 사람과 그 사회는 가난으로 가득한 수존(水尊)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백년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산 민들의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날과 같은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추수감사 절기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의 풍요를 국내외 가난한 이웃들에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계단신

▶ **호헌선시신문** 박상호 담임목사는 11월5~8일까지 동두천생명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대현교회로 이동해 합동축 강안교회교무부주관 목사장로수련회에 참석했다.

▶ **남촌한강교회**(유진형목사)는 10월30일 노인복지회 주최로 바자회를 가졌으며, 11월5일 저녁7시 오병이이 찬양단 주최로 추수감사 전교인 찬양을동대회를 개최했다. 11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본교회당에서(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 계획이다.

▶ **호헌선시신문**(유재복목사)는 11월4일 오전11시 강안교회교회교육관에서 강로, 권사, 집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 **강로장로** 권병선 담임집사 김진호 권사취임·황보정숙 권사 장영순 목사님 남궁현순 집사안수 권혁중 한상호 박도도 김남철

▶ **호헌선시신문**(유재복목사)는 11월13일 오후3시 팔호광장 외환은행 옆 건물 2층에 임대교회를 마련하고 교회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교회주최: 호헌선시 문교동 181-13 B/D 2F ☎ 033/252-8911

▶ **호헌선시신문**(유재복목사)는 11월19일 저녁7시 본교회당에서 "추수감사절"을 가지며 강장문 목사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교보보신관에서 강의한다.

선교회소식

▶ **월드비전 강안도지부**(이순환주부장)는 10월28일 경동대학교 대강당에서 월드비전 고신, 속초, 양양지회 주관으로 통일열린 남북한 사랑이길 "제9회 강원연합감사제"를 개최하였다.

11월11일 오후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월드비전 춘천지회 주최로 제14회 춘천연합감사제를 열었고 총 9개교의 성가대와 남성합창단이 직접찬양단으로 특별출연했다. 이 행사는 월드비전 사업의 홍보 및 춘천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로암선교회**(최창 김준연목사)는 11월7일 오후6시 춘천선시본부 사무실에서 홈커밍 데이 행사보고와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 **강안노회 합동 여전도연합회**는 11월7.8일 차악선명성수양관에서 실행위원 및 평생회원 수련회를 열었다.

▶ **강안기독교미술인협회**(이정수 회장)는 11월11~16일까지 춘천미술회관에서 제4회 기독교미술인회전을 열고 작가 17인의 작품을 전시했다.

▶ **강안노회 합동 남전도연합회**는 11월12일 오후2시 원주신일교회와 오후7시 원주중부교회에서 순회헌신예배를 드렸다.

▶ **예수전도단 춘천지부**(김봉국 대표간사)는 11월13~17일까지 예방침례교회에서 중보기도와 열전전도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중보기도회: 오전 10시 / 강: 오후 6시 30분
회비: 직장인 3만원, 학생 2만원

▶ **춘천기독교장로회연합회**(김용배회장) 정오예배모임(위원장 김용배목사)이 11월28일 정오 동부장로교회에서 있고 춘천지방방부 청신교회와 홀드아동복자신교회가 순서를 담당하며 장경호목사(CCC 대표간사)가 설교한다.

호헌선시신문

▶ **창촌선교회**(정용진목사)는 창촌 및 여전교회 주관으로 11월 10일, 11일 본교회에서 바자회 행사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와 선교사업 후원에 사용했다.

▶ **CBS 1번 찬송교** 호헌선시신문(김지경 회장)는 11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춘천CBS방송 "1번찬송교"코너를 담당하고 오전7시58분, 오후3시28분 매일 2회 방송으로 선교한다.

▶ **호헌선시신문**은 11월8일 정오 호헌회 회담의 차남부집에서 호헌선교회 연합회장 박재석목사(청정교회)를 초청, 직장선교와 복음화, 초교파적 교회지침을 위한 정오예배 및 기도회를 가졌다.

오는 11월20일 오후7시 남촌한강교회(유진형목사)에서 11월 정기예배를 드리고 정기 월례회를 갖는다.

▶ **호헌선시신문** 창간년의 찬양집회 호헌선시신문 창간년(회장 권오경)은 11월25일 오후6시30분 호헌선시신문(양명환목사)에서 중등부 학생회와 청소년 복음화를 위한 방수, 이광철전도사, 재한선복음선교사 등 CCM가수를 초청, 제2회 창간년 찬양집회를 개최한다.

(이성순 호헌선시신문지간담)

강원도 유기농 공동체 및 생산자 현황

지역	특산물	교회	연락처(033)
춘천	엽채류/근채류/과채/잡곡/버섯/간장/축산물	금산장로교회(한철민목사)	243-1898
	잔곡/오리밥/메주	두미강교회(이명길목사)	243-5162
홍천	복숭아	사림강교회(이복배목사)	434-0057
	잔곡/채소/과채/나무류	화방장로교회(한기동목사)	433-4904
원주	강낭콩/견과류/죽수/김치/대파/고구마	온생명농사회(대표한경호)	433-5639
			764-8098
회천	유정란/고추/당근	신호정교회(김두봉장로, 김명환장로, 김원섭목사)	442-0020
	메호박	개성교회(김원섭목사)	442-5404
평창	효소(산채)/잔곡류	신돌강교회(조규백목사)	442-1967
	차기/차류	신돌강교회(주승원목사)	441-3615
진부	차기/차류	신돌강교회(주승원목사)	335-3069
	쌀/김치	대대강교회(김종준목사)	681-3012
강선			681-3986

농촌교회·농어촌선교신문 제공

(칼럼)

다수결이 원칙인가?

민주주의의 기본법은 모든 인류가 행복을 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한 마음들을 묶어 좋은 사회를 만들고 모든 이들이 고루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중요한 사실 중 하나일 것이다.

민주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다수결이 진정한 것처럼 보이며 완벽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선거를 하고 지도자들을 뽑았다. 그러나 과연 다수결이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수행했을까? 바른 지도자를 뽑은 것인가? 기성 A라는 안수집사와 B라는 안수집사가 장로단에서 결정을 벌이게 됐다.

A집사는 성실하며 믿음이 좋고 헌금도 자기의 믿음대로 최선을 다하고 좋은 봉사자로 산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지독한 애연가의 습을 산다. B집사는 사기와 거짓으로 돈을 벌고 많은 헌금과 십일조를 바치는 반면 철저한 금연구가 하다. 이 두 집사 중 누가 장로가 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그것은 은혜에 빛나는 자로써 구원에 대한 감격의 신앙의 모습이라기 보다 많은 공적을 인정 받았다는 사이비성 의식구조가 현대 교회안에 팽배해 있다는 증거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세시대의 성인 숭배사상의 복고풍의 한 형태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의 율타리를 더욱 두텁게 하는데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교단성장이라는 유행이 물고 자란의 역사일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이 당시 모든 백성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던 시기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성인을 향하여 "독사의 세계"들이라고 그들의 위선을 과감하게 갈라하지 않았는가?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때로는 나폴레옹과 가이할 길일수도 있다. 물론 손가락질과 같은 비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깊은 줄은 길이다. 좁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길을 가면서 상처를 안는 정도가 아니라 있었는가.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예수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확신한다.

심자가의 정교는 그 몇 되지 않는 소수, 예수의 흔적을 계속 만들어 가는 소수가 성심화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은 세상에 생명을 높여 주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도 확신한다.

오늘의 춘천의 성도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오늘의 한국교회는 주님이 가신 정도를 바르게 안내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떨어져 생가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분별의 은사를 간구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길여가는 가을에 현재의 나의 자리로 돌아 생각해 봐야겠다.

(K 목사)

10월 성시선교 후원자명단

장기후원자	단기후원자
이병만 김현철 안정숙 한희현 안미애 이준태 오홍수 심기은 박동환 장찬복 홍순복 황병환 허순영 황순옥 최성호 정용현 홍성준 정유영 한희현 김진현 최경용 임은경 조남진 조충환 민병업 정석순 조경국 장기영 엄필남 윤진옥 김영명 이학규 한순수 유근강	춘천연립교회(신성관 목사) 춘천농사장로교회(장재호 목사) 춘천신앙중앙선교회(최상도 목사)
특별후원자	초교파 후원교회
이병만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 목사) 춘천석사강교회(임태창 목사) 춘천세수사랑장로교회(맹희철 목사) 춘천순복음제일교회(하기철 목사) 춘천소양성교회(이원호 목사) 춘천시로사랑장로교회(김준천 목사) 춘천신일성교회(이은주 목사) 춘천강문순복음교회(김길홍 목사)
	※ 본지는 하년 교회와 분지선교를 위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뜻이있는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 성시후원회계 (예금주-조남진) ◆ 농협 2002-02-280238 우체국 200022-02-129749 조충환 716-01-001389



교회연합으로 추수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와이즈맨 강원지방대회 개최



강원지방장 김필기 강도

국제와이즈맨 한국중부지구 제24회 강원지방대회와 회원연수가 지난 11월4일 오후2시부터 춘천메리타호텔 광화호텔 소양강에서 2백여명의 회원부부가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춘천 원주지역 8개클럽 회원은 중경지방장 배태열목사 이영일장로 개회기도, 강리교 동부연회 총무 방원복목사의 메시지, 김병기 강원지방장(원주서원강교회)의 강도의 축복전도와 대회사인이 있었고 박승호 차기국제총재(동대문강교회)의 경로의 주제강연과 축하공연, 워크숍 후 강원와이즈맨의 시간을 갖는 등 YWCA를 위한 봉사클럽으로서의 사랑과 회원간의 사랑을 가졌다.

와이즈맨 강원지방장은 194명의 회원으로 봉사, 전교, 헌신을 다지는 국제적 클럽으로 성장하고 있다.

강리교회 제24회 총회 장광영목사 감독회장 선출

-동부연회 감독 원주대장교회 박상혁목사 당선-

기독교대한강교회 제24회 정기총회가 21세기를 열어가는 화해 공동체란 주제 아래 지난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금강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총대원 4015명 중 3793명이 참석, 성찬식과 개회예배를 드린 후 본부 각 보고와 감사보고 및 유권한 보고를 접수한 후 정책회의를 하고 9개 연회별 감독을 선출하였으며 장광영목사(서울연회)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총회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전세계에 중계되었으며 미진한 사항은 총회실행위원회에 넘겨서 추후 처리하기로 한 후, 감독 및 감독회장 취임예배를 드렸다.

한편 동부연회는 원주대장교회 박상혁

[강리교회 각 연회 신임감독]

서울연회 장광영 감독 (공로제일교회)
서울남연회 홍안의 감독 (서울동대문교회)
중부연회 김용국 감독 (부평선교회)
경기연회 임은태 감독 (서울대원교회)
동부연회 박상혁 감독 (원주대장교회)
충북연회 김중문 감독 (계천남부교회)
남부연회 신동일 감독 (공주중앙교회)
충청연회 김소은 감독 (온양온천교회)
삼남연회 석준오 감독 (경북경주교회)

강리교회 봄내교회 창립예배

기독교대한강교회 봄내교회(양태목사)는 지난 10월15일 오후3시 춘천시 피레동 975-7번지 소재 본 교회당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양기태 담임목사의 사회로 김병봉감독의 사회로, 임태창목사 축도, 김필환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 신축성전 이전예정

교회창립 1백주년 기념 예배당을 건립하고 있는 춘천중앙감리교회(담임 권오서 목사)는 1998년 10월 착공, 현재 90%이상의 건축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17일 입당 예정으로 이전준비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건평 2천평의 본당을 1차로 완공하여 이후 2차로 구 유전동의 교회당은 춘천시에서 매입하여 미술관과 사진전시실 및 춘천의 문화사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대 수리한다.

국제화로 거보 내딛는 춘천성시화

- New York, Bihar, 춘천협력 선교하기로 -

춘천과 뉴욕, 인도 비하르주의 협회 회원들이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시에 있는 카르티켄터에 모여 있었다.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주례말씀, 사제기도, 찬양과 기도, 설교, 분배 및 중환자들을 통하여 선교사와 우호의례를 도출하고 세속적의 성찬식을 끝으로 협회회를 마쳤다.

뉴욕과 비하르 교회 협회회의 지도자들은 춘천성시화 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내년 초, 뉴욕에서 열리는 연합기도회 (Prayer Concert), 분배말 대표자 기도회 및 춘천성시화 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금번 3개국 협회회의를 갖게 된 것은 4년 전부터 비하르 선교에 열거되어 되고

있는 이영길 선교사의 역할이 컸다. 뉴욕 팀은 파트나시에 사무소(Born Office)를 개설하고 인도사역에 본격적인 역전을 취하고 있었다.

비하르의 영혼 구원을 위한 뉴욕팀과 비하르 현지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의 열성적이고 희생적인 사역의 모습 보면서 소망이 있음을 발견했다.

춘천은 성시화운동의 본산지로써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작 우리 교회들은 어떤 풍요에서 안일하게 종교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현재 비하르는 춘천성시화 기도모임의 파트너 10개 전문성 현지 방문사역과 연계하여 캠퍼스 주재 이중송신사역

이 벌이고 있는 터닝포인트 2000(Turning Point 2000)사역추진 결과,수령의 현지인들이 방문,입신하는 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후 현지교회들은 새벽기도회를 시작했고, 대학생들은 그룹별 기도모임을 일으키고 있다.

도 이영길선교사는 "파트나에서가죽훈련"에서 호주, 내관, 인도현지인 10여 명을 사역자로 훈련하고 있고 "중환개발원"을 통해 선교를 위한 사회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슬럼가" 어린이들의 교육에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 현지인들의 찬사와 지지아래 비하르 전지역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뉴욕과 파트나, 춘천의 협동사역을 통해 피폐한 비하르 땅에 평화로움을

수의 계절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일을 위해 복음의 후방에 있는 우리들은 현지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로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인도비하르가 이만큼 변화되고 있는데는 조은계 장로와 비하르단기선교팀 그리고 비하르 선교후원 협회회들의 아낌없는 중보기도와 후원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국제협회회의는 춘천성시화본부 사무총장 조충환목사, 예목단 청소년선교대표 이장배목사(은의감리교회), 비하르 기도원장 조은계장로(베드로병원장)가 참석했다.



▲ 제3회 CBS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이 11월13일 오후7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노래"란 주제로 열렸다.

기독교 교역자 연합회 원로, 은퇴목사 위로

춘천기독교 교역자 연합회(회장 권오서 목사)는 월로 은퇴목사님들 40여명이 11월16일 속초에서 위로회와 교계 발전방안을 협의했다.

대구·부산 도시성시화운동 적극 추진

- 교회, 교단 간 밀착 협조로 성시주간행사 -

대구경북 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조은계 목사)는 지난 11월5일부터 11일까지 "대구경북을 거품한 도시"란 주제로 도시성시화를 위한 성시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5일 "성시주일까지기 운동"을 전개했고 교회주변 정화운동과 거리기도, 성시화운동 행태, 전도세미나, 목회자상담세미나, 무료법률상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고 10일 오후6시 대구시내체육관에서 지역교회 성도들과 각계별 기독교인, 대학생, 청년들이 함께 제1회 성시대회를 가졌으며 현장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정필도 목사)는 11월을 성시화의 달로 정하고 11월13일부터 18일까지 "사랑이 넘치는 부산 만들기"를 주제로 부산사랑 주간을 전개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장년, 노년, 목회자, 교회 등 8개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선교활동을 펴고있는 기독교단체들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차별화를 시도했고, 부산사랑 주간 동안 매일 오후10시 기도회, 금식을 통한 북한 어린이들이 전도행사, 이메일전도편지 보내기, 인터넷 음란물 퇴치 프로그램 설치 등을 했다.

단비감리교회 창립예배

기독교대한감리회 단비교회(담임 탁수권 목사)는 지난 11월5일 오후2시 춘천시 동면 장항리 859-2번지 본교회당에서 사내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예배를 드렸다.

춘천CBS소년소녀합창단 호주-뉴질랜드 공연



단장 신종철

까지 시드니안다루교회, 브리즈번에, 오클랜드순복음사망교회로 방문하여 합창

연주를 갖는다. 지금까지 수차례 외국공연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합창단은 총60명의 단원(단장 신종철 안수집사)은 호주와 뉴질랜드 초청으로 11월22일부터 26일

대 청장문목사(동원교회), 사외 허태수목사(성암교회), 탁락수목사(계정교회)한금기도, 한성동장로 기도, 박태원목사(중앙교회)축도로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번 호주 뉴질랜드 초청 공연은 세계복음성서신학교와 셸던컬리지(Sheldon College)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성시신문의 필진을 기다립니다

본지에서 10월부터 새로운 한을 만들고 열의있는 필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해당분야의 원고들 매일 7시까지 본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이메일, 팩스, 우편, 인편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로 오름이 좋은 경우, 재택근 원고에 한해 선별을 중점할 계획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간증, 교회, 교계, 신자들에게 대한 조언, 행정기관이나 시민에게 보내는 편지, 신학, 성경해설, 입법 등 교육적인 글]

※ 원고 기준안은 A4 1장 이내이며, 내용이 긴 경우는 몇회 연재가능합니다.

주 소: 춘천시 효자1동 373-90 월드비전사회복지관 내 1F 성시신문 맡
팩 스: 033)257-1260
이메일: klibble2@hail.net / klibble2@hosanna.net
위 치: 춘천경찰서와 공설운동장 사이의 다리 건너기 전 / 방송통신대학에서 감독을 따라 미지미 건물 / 순복음제일교회, 신마루식당 옆

구세군 사랑의 내복 나누기

구세군 북춘천 봉사센터(대표 홍복식사)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00 사랑의 내복나누기)행사를 실시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어느때 보다도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주변의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내복 한 벌씩을 전달, 훈훈한 인정을 큰 기쁨 나누는 일에 많은 시민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 기간: 2000년 11월1일~12월31일까지
- 모집품목: 사랑의 내복 및 각종 생활용품(노인용) 등
- 전달대상: 춘천지역 무의탁 독거노인 등 100여명
- 실 적: 1999년, 내복 총 47벌 전달함
- 연락처: 춘천시 나눔동 90-3 2층7번 ☎ 033)243-7359 011-9901-6191 (홍복식사) 구세군북춘천봉사센터

청소년선교에 앞장 선 흥천만민교회

흥천만민감리교회(양명현 담임목사)는 지역학생 복음화를 위해 11월4일 오후6시 본교회당에서 중고등부 학생회 및 청소년 300여명을 초청, "달라다곤 찬양의 밤"축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만민교회를 비롯하여 흥천, 정촌, 운동, 유전, 동부감리교회와 희망,

제일, 연봉장교회 등이 협력해서 매년

각 교회별로 학생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다양한 기독교문화 행사를 제공하므로 청소년 선교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회를 초월한 흥천의 복음화, 성시화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순복음제일교회

FUL GOSPEL CHEIL CHURCH

담임목사 하 기 철

안수집사: 김 봉 옥
임 승 하
조 중 산

성가대장: 김 봉 옥
지휘자: 김 은 아
반 주: 연은미, 조상미

춘천시 효자1동 591-45 ☎ 257-3511 ~3

알로에마임

Aloe Maim

알로에는 자연입니다

알로에마임은
인간사랑, 자연사랑의 철학으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로에마임의 모든 제품은
인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춘천시 효자3동 756-3번지
☎ 033)242-2665 / 241-2489

대표 이관호 권사. 윤영순 집사